

##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AI 수석 하정우·대변인 전은수 영입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엔진과 국정연결자-

-현장형 전문성 갖춘 인재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 마련과 민생 회복에 박차-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정청래 당대표)는 4월 29일(수) 11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을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하정우 전 수석은 부산 구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및 동 대학원 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과 청와대 초대 AI미래기획수석을 역임한 대한민국 최고의 AI 전략 전문가다. 네이버에서 산업 AI 연구를 구축하며 글로벌 AI 경쟁력을 입증했고, 청와대 재직 시 국가 AI 전략의 시스템화와 글로벌 협력을 진두지휘했다. 민주당은 하 전 수석의 혁신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부울경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은수 전 대변인은 초등교사, 변호사를 거쳐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실전형 행정·소통 전문가'다. 법조인으로서 지역사회의 공익을 대변해 왔으며, 국정 운영의 최전선에서 정무적 감각과 정책 소통 능력을 검증받았다. 민주당은 전 대변인의 검증된 소통 역량과 현장 경험을 통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당의 정책 대안 제시 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인재영입식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더 큰 실천을 찾기 위해서 부산으로 간다"며,

“해양 수도라는 비전과 부울경 경제 기적을 만든 제조업 신화가 AI를 만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이라 밝혔다. 이어 “부산이 부산의 영광을 되찾고, 대한민국이 AI 3강 시대를 여는 데 밑알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편 전은수 전 대변인은 “정치는 결국 사람과 사람, 현장과 정책을 잇는 ‘연결’”이라며,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는지 몸소 체험한 실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현안을 국정의 중심 과제로 즉각 연결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미래를 잇고, 시민의 권리를 잇고, 대통령과 국민을 잇던 전은수, 이제 현장의 오늘을 대한민국의 내일로 잇겠다”고 다짐했다.

정청래 인재위원장은 하정우 전 수석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AI 3대 강국’의 설계자이고, AI 역량이 곧 국력인 이 시대에 우리 국가의 미래 비전을 완성할 필승카드”라 소개했고, 전은수 전 대변인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이재명 정부 청와대 부대변인을 거쳐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그 과정에서 쌓아온 국정 전반을 꿰뚫는 식견과 소통 역량, 그리고 방대한 인적 자산”을 가진 압도적 실력자라 강조했다.

이번 인재영입식에는 정청래 인재위원장(당대표)을 비롯해 조승래 사무총장, 김영진 인재위원회 부위원장, 박홍배 간사,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순차적으로 영입하여 정당의 정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하정우 프로필

<붙임 2> 하정우 인재 소개

<붙임 3> 하정우 발표문

<붙임 4> 전은수 프로필

<붙임 5> 전은수 인재 소개

<붙임 6> 전은수 발표문

## □ 일반사항

- 1977년 부산 출생(49세)
- 부산 구덕고등학교 졸업(9회)
- 서울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97학번)
-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대학원 졸업(박사)



## □ 주요 경력

- 삼성 SDS 연구원
- 네이버 클로바 AI리서치 책임리더(임원) ('20.3~'20.10)
- 네이버 AI랩 연구소장 ('20.10~'22.12)
- 네이버클라우드 AI Innovation 센터장 ('23.4.~'25.6)
- 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25.6~'26.4.)
- 국가AI전략위원회 CAIO협의회 의장 ('25.9.~'26.4.)

## □ 대외 활동

-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24-현재)
- 서울대-네이버 초대규모 AI 연구센터 공동센터장 ('21~'23)
- KAIST-네이버 초창의적 AI 연구센터 공동센터장 ('21~'23)
- 사)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 (24-25)
- 홍콩과기대(HKUST GZ) 겸임교수 ('23)

□ 수상 이력

- 소프트웨어 유공 국무총리 표창 (‘23)
- 한국공학한림원 젊은공학인상 (‘24)
- 2014년 가을학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부 최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15)

### 북구에서 나고 자란 북구의 아들

하정우는 부산 북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사상초등학교, 사상중학교, 구덕고등학교를 거치며 성장한 그는 1995년 사상구가 분리되기 전까지 북구가 낳고 기른 '북구의 아들'이다. 사상, 구포, 덕천을 아우르는 부산 북구는 그가 나고 자란 삶의 터전이자 배움의 뿌리였다. 매일 저녁 하교 후 버스를 타고 덕천사거리 영어 학원을 오가며 몰두했던 '성문종합영어'는 소년 하정우의 시야를 넓혀준 첫 관문이었다. 치열했던 학창 시절의 노력은 훗날 그를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로 이끄는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다.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밤차에 몸을 싣고 긴 밤을 달려 마주한 '구포역'은 그에게 단순한 기차역 그 이상의 의미였다. 새벽녘 덜컹거리는 기차에서 내려 들이마시는 구포역의 차가운 새벽 공기와 그 틈으로 불어오는 낙동강 바람은 언제나 '이제야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수십 년이 지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전문가가 된 지금도 구포역의 기억은 그의 마음 속에 남아 있는 변치 않는 고향의 상징이다.

### 게임을 좋아하던 공대생, AI의 미래를 예견하다

고교 시절 게임을 좋아해 컴퓨터공학을 선택했던 그는 수능 실패라는 좌절도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바뀌었다. '연습도 실전처럼'이라는 평정심으로 다시 도전했고, 두 번째 수능에서 의대 진학이 가능한 성적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컴퓨터공학의 길을 선택했다. 동기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때 그는 현역으로 입대해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남들이 편한 길을 택할 때도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하는 원칙과 책임감은 그 때부터 분명했다.

삼성 SDS 입사 후 남들이 기피하던 거제도 근무를 자원했고, 최우수 신입사원상을 받으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안정된 길에 머무르기 보다 세상에 더

큰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은 그를 다시 학문의 길로 이끌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접한 인공지능은 당시만 해도 비주류 연구분야였으나 그는 그 무한한 가능성에 매료되었다. 9년간의 연구 끝에 '뽀로로'를 이해하고 이야기를 생성하는 AI 기술로 세계 최고 권위 학회인 AAI 2015에서 구두 발표로 채택되고,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대학원 최우수 박사학위 논문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대한민국 AI를 글로벌 무대로 끌어올린 '국가대표 전문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한 하정우는 알파고 충격 이후 시작된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AI의 저력을 증명했다. 네이버 역사상 최초로 순수 자체 연구로 세계 최고 수준 학회에 논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냈고, 아시아 최고 수준의 산업 AI 연구소를 구축했다. 그 결과 네이버는 세계 AI 연구 경쟁력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음악 추천 비서 서비스, 초거대 AI모델인 '하이퍼클로바' 개발을 주도하며 한국형 AI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다. 챗GPT 등장 이후에는 AI의 안전성과 책임성,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경쟁이 곧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문제라는 점을 누구보다 먼저 알렸다. '소버린 AI'라는 개념을 정부와 국회, 산업계에 꾸준히 제기해온 것도 그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를 넘어 대한민국 AI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가로 성장했다.

### **대통령의 '하GPT'에서 부산 복구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로**

대한민국 미래의 골든타임인 3~5년을 위해, 그는 안정된 삶과 수입을 뒤로하고 청와대 초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서 국가 AI 전략 설계에 나섰다. 대규모 GPU 인프라 확충, UAE·싱가포르 등 글로벌 국가와의 AI 협력, 부산항 피지컬 AI 프로젝트 추진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을 닦았다. 과기부총리제, AI전략위원회 확대 등 국가 AI 전략을 시스템화하는 데 공을 들였고, 대통령으로부터 '하GPT'라는 애칭을 얻을 정도로 그 전문성과 실행력을 인정받았다.

이제 하정우는 전략을 넘어 '실행'의 시간으로 나아간다. 그는 중앙에서 기획한 AI 전략이 지역 산업과 주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부울경의 해양·항만·제조·조선·방산 산업이 AI와 결합할 때 부산은 대한민국 혁신 경제의 중심지로 다시 도약할 수 있다.

법과 제도의 뒷받침 없이는 전략도 현실이 될 수 없음을 알기에, 그는 정치를 통해 그 실행을 책임지기로 했다. '대통령의 하GPT'를 넘어 '북구의 하GPT'가 되어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북구의 현안을 AI로 해결하겠다는 각오다. 북구가 낳고 키운 하정우가 이제 북구가 꿈꾸는 미래를 실현할 시간이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과분하고 명예로운 청와대 첫 AI 수석의 소임을 마치고, 부산으로, 국회로 가려고 합니다.

더 큰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 북구 시민이 되어 구포 1,2,3동, 덕천 1,2,3동 만덕 2,3동 가족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졌고 젊은 사람들은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뛰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꼭 찬 마흔아홉의 나이에 고향에 돌아가 새로운 부산과 북구의 시대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떨립니다. 저는 그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실천을 찾기 위해서 부산으로 갑니다. AI 플랜은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안됩니다. 해양수도라는 비전과 부울경 경제 기적을 만든 제조업 신화가 AI를 만나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이미 플랜은 제도와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랜드마크와 상징 언어입니다. “해양수도 X 피지컬 AI = 부산 대전환”의 명쾌한 공식입니다. 저는 이 공식으로 부산이 부산의 영광을 되찾고 대한민국이 AI 3강 시대를 여는 데 밑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 속도전입니다. 외교와 경제가 함께 뛰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서울과 부산이 함께 뛰는 나라, 전통 산업과 미래의 AI가 합체가 되는 나라, 젊은 세대와 장년 세대가 하나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설계자에서 실천가로 변모하고자 합니다. 설계는 이미 준비됐지만 실천을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부산이 성장해야 부울경도 성공하고 대한민국도 AI 3강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청와대로 갔던 것처럼, 이제 청와대에서 국회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법 제도 속도 높여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대전환과 대도약의 골든타임입니다. 이재명-전재수-하정우가 만드는 새로운 성장을 지켜봐 주십시오. 말석에서 무어라도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확신의 시대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정우를 부산으로, 국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 제대로 일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부서지도록 일하겠습니다.

회사일 청와대 일하면서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배우고 쌓고 얻은 것을 모두 쏟아붓는 것 오랫동안 꿈꿔왔습니다. 지금이 그 때입니다.

어머니와 누나, 행님,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 부산 발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 일반사항

- 1984년 부산 사하구 출생(39세)
- 울산 우신고등학교 졸업(2003)
-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사회)(03학번)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무석사 졸업(2015)



## □ 주요 경력

- 대전 샘머리초등학교 등 초등교사('07~'12)
- 법무법인 삼성, 법무법인 법조 등 변호사('15~'21)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19~'21)
- 한국광물자원공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위원('20~'21)
-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청년교육분과('21.9~'23.9)
-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21~'24.01)
-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부회장 겸 제3사무총장 ('22.07~'23.07')
-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7호 인재' 영입 및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선거 출마 ('24.01)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4.06~'24.08)
-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본부장 ('25.04)
-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울산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25.05)
- 청와대 부대변인 ('25.06~'26.04)
- 청와대 대변인 ('26.04)

### 밝고 적극적인 성격의 아이

전은수 변호사는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달동네에서 태어났다. 2살이 되던 해 울산으로 이사를 했지만 허름한 주택가의 셋방살이 살림이 계속될 정도로 넉넉지 못한 형편에서 자랐다. 그러나 어려운 형편을 극복하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고, 친구들을 만나면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교우관계를 만들었고 지금에 와서도 큰 자산이 되었다고 한다. 전은수 변호사의 밝은 성격은 어려운 가정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 결과다.

### 초등교사가 변호사가 된 사연

전은수 변호사는 어려운 집 사정으로 인해 아버지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 학비와 생활비가 저렴한 공주고대에 진학했다. 24살에 대전 지역 교사로 임용되어서는 아이들이 행복하길 원하는 마음에 인성교육에 집중했다. 교실 테두리를 벗어나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꾸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꿈을 지원해주는 것이 교육 본연의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꿈은 교사였던 전은수 변호사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척박해지던 지역사회를 모두가 행복해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결국 전은수 변호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할 기회가 많은 법조인의 길을 걷기로 했고, 결국 교사생활과 로스쿨 입학 공부를 병행한 끝에 부산대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

###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전은수 변호사는 자신이 변호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를 잊지 않았다. 지역의 시민 단체들과 공익재단 등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매진했다. 대한민국은 초저출생, 경기침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심화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전은수 변호사는 소득·교육·의료·인구 문제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지역 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발전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때로는 교육자로서, 때로는 법률가로서, 때로는 정치인으로서 지역을 살려 대한민국의 삼중고를 해소하는 것이 전은수 변호사의 정치 비전이다.

## 청와대 부대변인·대변인으로서의 국정 소통 경험

전은수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리더로서 역량을 인정받아 청와대 부대변인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국정 소통의 최일선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국민에게 전달하며 '말의 무게'를 견디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했다. 매일 새벽 언론인들과 소통하며 정책의 세심한 부분까지 국민의 언어로 풀어냈고,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식견과 소통 역량을 쌓았다. 대변인 시절의 경험은 단순히 정책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국정의 책임이 지역의 민생 현장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 국정의 맥을 짚는 '준비된 연결자'

전은수 변호사는 청와대 부대변인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국정 운영의 최전선을 경험했다. 중앙 정치의 정무적 흐름과 예산 편성 체계를 몸소 체득한 그는, 연습이 필요 없는 '실전형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아이들의 미래를 세상과 연결하던 교육자, 시민의 호소를 법과 제도에 연결하던 변호사를 넘어,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중심에 연결하는 소통의 책임자로 거듭났다. 이러한 풍부한 인적 자산과 정책적 식견은 지역의 현안을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키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 지역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은수 변호사는 이제 새로운 연결자로 나선다. 교육자 출신의 따뜻함으로 현장을 살피고, 법조인의 날카로움으로 공정을 세우며, 국정 경험에서 다진 실력으로 지역의 가치를 완성하고자 한다. 지역의 숙원 사업을 국정과 연계하고, 중앙의 예산과 자원이 교육·복지 현장으로 막힘없이 흐르게 하며, 첨단 산업을 세계 경제 생태계와 잇는 것이 그의 목표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어 '사람이 오고 미래가 오는 곳'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전은수가 꿈꾸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변인, 이제 국민의 삶을 대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변인에서 이제 국민의 삶을 대변하겠습니다. 전은수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내려놓고, 당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정 소통의 최일선을 믿고 맡겨주신 대통령님과 늘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시간 부대변인과 대변인으로 보낸 11개월은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체득한 여정이었습니다. 매일 이른 새벽, 언론과 여론의 중심에서 청와대와 국민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치열하게 소통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국정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정의 책임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성찰했습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과 사람, 현장과 정책을 잇는 ‘연결’입니다. 제 삶의 중심에도 늘 ‘연결’이 있었습니다. 제 생애 첫 직장, 충청의 교단에서는 아이들의 미래를 세상과 연결하는 첫 길목을 지켰습니다. 제 인생의 변곡점, 변호사로서는 시민의 절실한 호소를 법과 제도라는 해결책에 연결했습니다. 제 삶의 대전환점, 청와대 대변인단으로 합류해서는 국민의 아픔을 국정의 중심에 연결하며 소통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브리핑룸의 마이크 뒤가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국민의 숨결을 직접 듣고 더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청와대를 떠나는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민생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과감하지만 신중하게, 신속

하지만 치밀하게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된 실전형 정치'를 약속합니다. 국정 맥을 짚어본 경험, 중앙 정치의 정무적 흐름을 꿰뚫는 식견을 오롯이 민생 현장에 쏟아부겠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는지 몸소 체험한 실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현안을 국정의 중심 과제로 즉각 연결해 내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정치는 '세 가지 연결'로 완성됩니다.

1. 현장과 국정을 잇겠습니다. 현장의 숙원 사업을 국정과 연계하여 타협 없는 실행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예산과 민생을 잇겠습니다. 중앙의 자원이 필요한 곳에 막힘없이 흐르도록 예산의 통로를 뚫겠습니다.
3. 오늘과 미래를 잇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과 혁신 성장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되도록 연결하겠습니다.

교육자의 따뜻함으로 아이들을 살피고, 법조인의 날카로움으로 공정을 지키며, 국정 경험의 실력으로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누구보다 민생을 걱정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국민께 전달하던 그 단단한 마음을, 이제는 지역 속에서 국민과 직접 마주하며 풀어내겠습니다. 저 전은수라는 든든한 다리를 통해,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잇고, 시민의 권리를 잇고, 대통령과 국민을 잇던 전은수, 이제 현장의 오늘을 대한민국의 내일로 잇겠습니다. 감사합니다.